

(특) (별) (제) (언)

# 농약의 "범죄취급"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제11회 세계 환경의 날에 즈음하여 모 일간신문 1면 특기사에 「생태계(生態系) 파괴의 주범은 “農藥”」이라는 제목을 기사화하여 보도한 바 있다. 그 기사 내용을 읽고 「매스컴」의 과대보도에 유감을 금할 길이 없다.

그 기사의 주제만을 얼듯 보면 모든 생태계의 파괴는 농약에 의하여 야기되고 현 시점에서 농약만 배제하면 건전한 환경 보존은 가능하다는 인상을 받기 쉽다.

## 1. 잘못된 보도 불신만초래

이 뿐만 아니라 최근 “농약공해” “농약의 식품오염”, “농약의 환경오염”이라는 내용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 과대 기사화되는 일을 자주 볼 수 있다.

현재 야기되고 있는 모든 환경오염이 농약의 사용에서 기인된 것처럼 잘못 보도되는 이와 같은 일은 극히 잘못이며 앞으로 이 문제만은 과감히 시정되었으면 한다. 근래 신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농약의 중

류를 보면 언제나 DDT, BHC, 유기수은제 등을 들추어 보도하고 있는데 이들 농약은 이미 탈락된지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그와 같은 문제성을 지닌 농약이 다시는 농약으로 사용될 리는 없을 것이다. 탈락된지 이미 오래된 농약을 대상으로 대서특필하여 현대 농약에 대한 불신(不信)과 인식을 흐리게 하는 처사는 근대농약이 지닌 안전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유래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벌레먹은 흔적이 있어야 또는 기형의 과실이나 채소라야 무공해 식품이라 단정하는 처사는 근대 과학적 영농을 회롱하는 일로 보아지며 농업증산 의욕을 모독하는 일로 받아 들여진다.

(특) (별) (제) (언)

# 시정을 촉구한다

교수 최 승 윤

근대 인류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그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도시의 근대화, 산업의 근대화, 생활 환경의 인위적 미화 등은 불가피하며 이들의 원시적인 환경 보존을 위해 근대사회는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 인류생활의 근간이 농업의 발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의 바탕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생태학자가 본 농업은 오늘날의 농업 그 자체가 환경의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만 단정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원시적 상태환경의 보존을 위해 근대농업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논리 또한 성립시킬 수 없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인류의 발전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농업의 발전을 통한 굶주림의 해결이었고 의학의 발전을 통한 무서운 질병의 치료에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근대 농업이 안고 있는 큰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인구에 대응하기 위한 식량증산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식량증산을 위해 각종 시책이 마련되고 그 목표달성에 부심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2. 식량증산과 농약의 위력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하는 길은 농지 면적을 확대하는 일과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두 가지 길밖에 있을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농지 면적을 넓히는 일은 이미 한계점에 이르고 있어 어떻게 하면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높이느냐에 관한 길만을 찾는 것이 근대 농업의 과제로 되어 있다.

단위면적당 농업생산성의 증대는 지력증진(地力增進), 수리안전(水利安全), 품종개량(品種改良), 병해충방제(病害虫防除)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무서운 질병의 치료가 인류의 복지 향상에 크나큰 공헌을 하고 있듯이 근대 농업에 있어서 병

□ 농약의 범죄취급 시정을 촉구한다 □

해충의 방제가 따르지 않으면 안정된 농업의 생산성은 지속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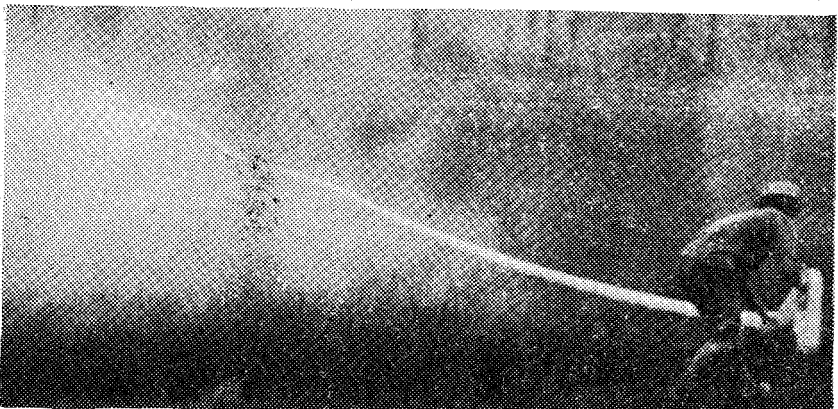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높이려는 현대 농업의 기술투입은 병해충 발생에 유리한 환경 조건이 되기 때문에 병해충의 방제기술이 정립되지 않는 한 현대농업의 경영은 불가능하다. 병해충 방제에 대처하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나 현재 주어진 방법으로는 농약이 지닌 위력을 빌리지 않으면 도저히 이룩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의약품이 필요하듯이 농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데 농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것으로 본다.

3. 탈락된 DDT·BHC

물론 농약의 사용과정에서 사회적

물 의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즉 DDT, BHC, 유기수은제 등과 같은 농약이 무절제하게 사용되어 각종 환경오염 잔류독성 등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이르켰던 일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농작물의 보호에 있어서 농약의 역할에 관한 변천을 역사적, 기술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점에서 “농약 시대”의 흐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1946~1962년에 이르는 농약의 “낙관시대”, 1962~1976년에 이르는 “의아시대”, 1976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종합방제 시기”로 대별된다. 농약의 “낙관시대”에는 농약의 개발에서 사용에 이르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다. 또한 엉뚱한 일도 많이 저질렀다. “의아의



◇ 농약등록여부는 한 농업행정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농약 연구자, 대학 교수 및 환경청, 수산청, 내무부 관계관 등이 포함되는 농약관리위원회가 있어 신문 지상에 보도될 수 있는 우려점은 모두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시기"에 접어들면서 문제성을 지닌 농약들이 여러 과학자들에 의하여 노출되었고 위정자 또는 농업행정가들에 의하여 과감하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요즈음 신문보도에 자주 오르내리는 DDT, BHC, 유기수은제 등 문제성 농약이 모두 탈락되었다. 본인도 이와 같은 처사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통쾌한 일로 생각하며 잘된 처사로 본다.

그러나 "종합방제시기"에 접어들면서 농약의 평가 기준은 크게 달라졌다. 특히 이때부터 사람에게 대한 안전성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점들이 적극적으로 가미되어 농약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최근 농약의 "총점평가제"가 도입되어 농약을 평가하려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더 농약의 안전성은 크게 향상될 것에 틀림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농약을 등록하는 데는 무척 까다로운 점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 점은 미국이나 일본에 버금갈 정도로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더욱이 농약의 등록이 어느 한 농업행정가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에는 농약행정가, 농약연구자, 농약연구에 관계하는 대학교수 뿐만 아니라 보건사회부 관계자는 물론

환경청, 수산청, 농촌진흥청, 내무부 관계관 등 각계 인사를 망라한 농약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다시 농약전문분과위원회가 있어 여기에서 신중히 검토한 연후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우려점은 모두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 4. 현대농약 인식 바뀌어야

현대 우리에게 부과된 식량증산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기간산업이며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산업이 되고 있다. 자동차나 비행기 사고로 인명의 피해가 있을 때는 차라리 그와 같은 문명의 흉기를 멀리 하고 안 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근대농업에 있어서 증산을 위해서는 농약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해서 농약의 무절제한 사용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다. 농약의 사용과정에서 우발적인 사고가 있을 때마다 하루 아침에 농약의 무용론자가 되는 일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이미 탈락된 농약을 대상으로 "공해", "환경오염", 농약을 범죄취급하는 일은 그 시정을 촉구하고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근대농약의 새로운 인식을 바라마지 않는다. ㊦